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5:00 (유·초등부)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02월 16일(일) 11:40	강당
성체분배자회	02월 17일(월) 19:40	성체조배실

● 다음 주일(02/23) 청소 담당 : 22구역

● 알림

- 02월 19일(수) 경로당 월례미사 있습니다.

● 미사시간 변경 안내 및 추가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초등부	토요일 16:00 소성전	주일 15:00 대성전
중고등부	주일 10:00 소성전	주일 12:00 대성전
청년	주일 19:00 대성전	주일 18:00 대성전
주일 밤 미사	주일 21:00 대성전 (신설)	

- 변경 및 추가일시 : 3월 2일(일)부터

● 스마트폰 가톨릭하상 앱 설치 안내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가톨릭하상앱 설치
- 회원가입후 가톨릭페이 충전하여 봉헌가능
- 교무금,주일헌금 납부가능

● 반주봉사자 모집안내

- 평일미사 반주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반주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꾸르실료 참가신청 안내

- 여성 제420차 꾸르실료(3월20일~3월23일)
- 배정인원 : 1명
- 접수마감 : 3월2일까지(사무실접수)
- 참가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후보기준
 - ①중추적인 사람:인품과 자제력,책임감있는 사람
 - ②봉사적인 사람:복음의 누룩이 될 수 있는 사람
 - ③연령은 40세이상 70세이하 고졸이상인 사람
 - ④세례를 받은 지 3년이상 되고 견진을 받은 사람
 - ⑤3박4일의 꾸르실료 과정을 이수할 있는 건강한 사람

● 2025년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미영세자포함)
- 접수기간 : 2월 16일까지
- 교육기간 : 추후알림
- 신청방법 : 본당 사무실로 신청
- OT 일시 : 2월 23일 오후4시(유초등부 주일미사후)
- 첫교리시작 : 3월 9일 일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 재의 수요일 안내 : 3/5(수)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3/2(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새벽 6시 30분	저녁 7시
-----------	-------

● 우리들의 정성(2월 5일 ~ 2월 11일)

교무금	6,919,000원
주일헌금	4,634,000원

- 감사헌금 12구역 5만원 김종성10만원 심점순 5만원 우영숙10만원 안진형 5만원 익명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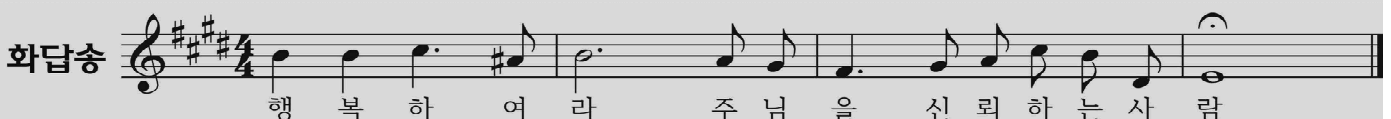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2/16	백희자	심재순 장희석	임종윤 김성해
2/23	이영민	조홍환 도현만	윤상기 류선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2/16	김영균	김진수	박승환 박용환	도현만
2/23	최웅조	김용진	옥윤필 이운영	조홍환

성가번호 ♪ 입당 : 37 ♪ 예물준비 : 219, 217 ♪ 영성체 : 162, 172 ♪ 파견 : 400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김주린 미사 전례 지침

영성체 예식 동안의 기도

영성체 예식에서 집전 사제가 하는 부분은 주례 사제 혼자 바친다. 여기에는 공동집전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평화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지나치게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성체를 쪼개어 나누는 예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총지침, 154항 참조).

빵 쪼갬

“하느님의 어린양”은 평화의 인사를 다 마친 다음에 시작한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는 동안 부제, 또는 부제가 없으면 공동집전 사제 사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주례자를 도와 성체를 쪼개어 나눈다. 필요하다면 성혈도 그렇게 한다.

공동집전자들은 다른 미사에서 축성하거나 감실에 모셨던 성체를 모시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공동집전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해야 한다(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24일의 신앙교리성 회람(Prot. 89/78-17498), B3 참조).

영성체

주례자가 교우들에게 성체를 들어 보이며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할 때에 공동집전자들은 성체를 주례자처럼 높이 들지 않는다. 다만 오른손에 성체를 쥐고 왼손으로 그 밑을 받친다.

주례자가 “그리스도의 몸은 ……” 하고 성체를 모실 때, 공동집전자들도 성체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때에 성체를 모신다. 사제가 모시는 성체가 꼭 큰 성체를 반으로 자른 것일 필요는 없다.

성혈은 주례자가 모신 다음에 한 사람씩 제대로 나아가 모신다. 제자리에서 부제나 다른 사제가 모셔온 성작에서 성혈을 모시고 옆 사제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성체도 이렇게 모실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옆 사제에게 넘겨준다.

공동집전 사제들은 성체를 성혈에 적서 모시는 방식으로 영성체를 할 수도 있다.

공동집전 사제들 가운데 성체를 분배할 사람들은 먼저 영성체를 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성작과 성합 닦음

영성체를 마치면 성혈은 곧바로 다 마셔야 한다(총지침, 182항 참조). 성작과 성합은 그 자리에서 닦거나 주수상 위에 성체포를 깔고 그 위에 잘 덮어두었다가 미사 후에 닦을 수도 있다(총지침, 183항 참조).

제대 인사와 퇴장

제대를 떠나기에 앞서 주례자가 부제와 함께 제대에 입을 맞출 때에 (아니면 허리를 굽혀 깊이 절할 때에) 공동집전자들은 제대에 허리를 굽혀 깊이 절한다(총지침, 251항 참조). 제단에 감실이 모셔져 있으면 입당 때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어 감실에 공경을 드린다(총지침, 274항 참조). 그런 다음 제단을 내려와 퇴장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무릎을 꿇어 공경을 드리는 행위를 모두 허리를 굽혀 깊이 절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하였다.

2004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